2022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 지원결정대상

연번	분야	단체명	대표자	지원신청사업명	지역	지원예정액(원)
1	전통예술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김인숙	여성 창극 기장 매바위 어사암(御史岩)	부산	26,000,000
2	무용	(사)한국현대무용진흥회	양정수	육완순, 그녀에게	서울	45,000,000
3	연극·뮤지컬	(주)극단민들레	장계숙	불 켜는 이 (부제 : 나와 나)	경기	33,000,000
4	전통예술	(주)예술숲	김면지	<진도 상장례문화 공연, 아카이빙> "상가(喪家)에서의 하룻밤"	인천	40,000,000
5	음악	경상필하모닉오케스트라	손성준	황혼에서의 판타지아	경남	44,000,000
6	무용	공연기획MCT	전홍기	무용 <스페셜 발레_ 존재存在 (Being)의 이유>	서울	45,000,000
7	연극·뮤지컬	공연배달 탄탄	김화영	슈퍼히어로의 탄생	서울	34,000,000
8	음악	구미오페라단	박영국	원로예술인과 함께하는 한국 창작가곡과 오페라갈라 콘서트(시화전 포함)	경북	26,000,000
9	연극·뮤지컬	극단 떼아뜨르 고도	권영국	연극 '피고지고 피고지고'	대전	39,000,000
10	연극·뮤지컬	극단 로얄씨어터	윤여성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	서울	43,000,000
11	연극·뮤지컬	극단 민예	이혜연	연극 '졸업'	서울	36,000,000
12	연극·뮤지컬	극단 실험극장	이한승	마포나루 사람들	서울	37,000,000
13	연극·뮤지컬	극단 앙상블	이종국	연극 '명학소의 북소리'	대전	33,000,000
14	연극·뮤지컬	극단 여우	박성호	연극 '막차탄 동기동창'	강원	19,000,000
15	연극·뮤지컬	극단 파도소리	강기호	풍물시장 여간첩	전남	38,000,000
16	전통예술	꿈꾸는산대	김정주	예도난(藝道亂) – 세상의 편견과 싸운 여성 예술인	경기	35,000,000
17	음악	대건챔버콰이어	오형진	바흐 '칸타타 & 미사' (BWV 4, 147, 235)	인천	29,000,000

연번	분야	단체명	대표자	지원신청사업명	지역	지원예정액(원)
18	음악	배익한 재즈오케스트라	배익한	<소리: 아우름>	서울	15,000,000
19	전통예술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봉산탈춤보존회	김성해	탈 탈 탈	서울	35,000,000
20	음악	사단법인 더솔로이스츠	정성흡	네 가지 색(色), 하나된 하모니	부산	40,000,000
21	전통예술	사단법인 인천남사당놀이보존회	지운하	유랑인생 '머리에 꽃 달고'	인천	29,000,000
22	전통예술	사단법인 한국정악원	강영근	원로명인 이야기음악회 '가곡(歌曲), 삶의 노래'	서울	35,000,000
23	연극·뮤지컬	아레떼(Arete)	염우형	연극 백조의 노래	서울	36,000,000
24	음악	원뮤직(ONE Music)기획사	조미원	제주를 담은 작곡가 조영배의 한국가곡 _ 너영 나영: 너와 나와	경기	15,000,000
25	전통예술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서광일	연희판놀음 <상생의 비나리>	인천	35,000,000
26	다원예술	커뮤니티 아트랩 코지	민경언	<홍신자의 '마지막 테이프' (Sincha's Last Tape)>(가제)	제주	37,000,000
27	전통예술	한국민속극박물관	심하용	전통연희 창작극 <곰바우: 남사당을 만난 리어왕>	충남	35,000,000
28	음악	한국원로교향악단	전용수	한국원로교향악단 동서화합을 위한 하모니 콘서트	서울	26,000,000
총 28건						**940,000,000**

2022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 심의총평

ㅇ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2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ㅇ 회의일시 : 2022년 6월 17일(금) 14:00~18:00
ㅇ 회의장소 :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
ㅇ 심의위원 명단 : 고주영, 곽수정, 권옥희, 김태희, 박재성, 안진상, 이송, 최혜진, 한방원

ㅇ 지원사업의 목적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은 만 60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자긍심 고취와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우수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지역적 특색을 담아낸 공연 지원을 통한 문화취약계층·지역의 문화격차 해소 및 원로 예술인·단체의 활동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후원 받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심사의 기준 역시 원로예술인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공연, 원로예술인들을 예우하며 원로예술인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하고 원로예술가와 더불어 세대 간 화합과 세대를 아우르는 기획안을 제시하는 단체, 사업의 프로그램과 신청된 예산 규모에 적절하게 신청한 단체 등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기존사업과 유사한 기획안을 제시한 사업, 기획안과 원로예술인 참여 취지의 당위성이 부족하고 원로예술인의 출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중복 출연, 창작적 의미와 동시대성 고민이 엿보이지 않는 사업,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ㅇ 사업의 심의과정 및 심의기준

2022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에 총 160건이 지원 신청했으며 분야별로는 연극·뮤지컬 52건, 무용 9건, 음악 48건, 전통예술 44건, 다원예술 7건이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공모심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심의 운영에 관한 처리기준>을 준수하며 1차 전수검토제로 제출서류 검토 및 온라인 가채점 방식으로 진행했고, 2차 종합토론에서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심의를 진행하여 최종 지원단체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업의 심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50%)
- 원로예술인을 주축으로 공연이 진행되는가?
- 신청내용이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예술적 성취가 기대되는 사업인가?
- 문화 취약 계층 및 지역의 문화격차 해소 증진에 기여하는가?

2) 사업계획의 충실성(30%)
-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과 일정을 수립하였는가?
- 사업추진을 위한 수행인력 확보와 구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예산이 합리적이며 신청 규모에 맞게 계획되어 있는가?

3) 수행단체의 역량(20%)
- 사업주체의 실적은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사업 전담 기획·행정인력을 배정하였는가?

심의 과정은 모두 4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위의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한 1단계는 전수검토 후 사업성과 적정예산 검토, 장르별 예산검토, 중복지원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변별력을 위해서 2단계로 장르별 심의위원들이 장르와 분야별 지원신청서의 심의 기준에 따른 적격성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통합 심의인 만큼 장르와 분야별로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했고, 예술사 안에서 원로예술인들의 활동에 기여 할 수 있는 계획들의 구체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하며 진행했습니다. 3단계는 2단계에서 선정된 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토론을 거쳐 사업의 고유 목적성 달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고, 개별사업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 장르에 대한 이해, 지원사업에서 원로에 대한 예우, 지역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창작품 우선, 지역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비수도권 지역 배려, 사업완수에 대한 행정역량 등을 종합토론을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사업별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장르별 심의위원들의 협의를 통해 비율 및 건수, 예산 금액을 조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심의위원 전 분야 개별 채점을 통해 다득점 순으로 선정 단체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의 과정을 거쳐 연극·뮤지컬(10건), 무용(2건), 음악(7건), 전통예술(8건), 다원예술(1건) 등 최종 28건을 2022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선정단체로 확정하였습니다.

ㅇ 심의 총평

2022년「원로예술인 공연지원」사업은 원로예술가 분들이 교부, 정산 등의 행정 처리 부담을 갖지 않고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수요건으로 원로예술인 참여 공연에 대한 제작·행정·홍보지원 실행역량을 갖춘 문화예술단체가 지원하게 되어있고, 실연자, 제작진 대상과 창작자 대상 중 택일 선택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로예술인 참여 필수요건으로 인하여 유명 원로예술인을 중복해서 출연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여럿 보여 안타까웠습니다. 반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원로예술가들의 활동이 기대되는 사업도 많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평생을 예술계에서 활동하며 쌓은 경륜과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고 예술의 현장에서 현역의 예술인들과 함께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이 심의위원 모든 분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몇 년 동안 공연계는 참담한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원로예술인들에게는 더 힘든 시기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원로예술인 공연지원」사업에 참여해주신 모든 단체에 감사드리며 선정된 단체는 책임감 있게 사업을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아쉽게 탈락한 단체들은「원로예술인 공연지원」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원로예술인의 예술 활동의 가치가 예술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재조명받아 세대를 이어 전승 발전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 심의위원 일동